

구현모 “초거대 AI ‘믿음’ 상용화… 韓, DX 경쟁력 높일 것”

(KT 대표이사)

(디지털혁신)

KT AI발전전략 발표

디지털 인재 양성 등 3대 전략 소개
‘한국형 AI 반도체 풀스택’ 완성 목표
구 대표 “믿음, 혁신의 수단이 될 것”

“차세대 인공지능(AI)으로 평가받는 초거대 AI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디지털혁신(DX)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연임 의사를 밝힌 구현모 KT 대표는 초거대 AI 상용화, AI 인프라 혁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KT의 3대 발전 전략으로 꼽았다. 또 AI 원팀과 함께 내년까지 기존에 비해 3배 이상의 효율성을 갖춘 한국형 AI 반도체 풀스택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소개했다.

구 대표는 16일 서울 잠실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초거대 AI인 ‘믿음(MIDEUM)’을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거대 AI는 성능, 확장성, 비용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 기존 AI에서 더 나아가 범용성, 맞춤형, 창의적 학습이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어느 기업이든 KT의 초거대 AI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초거대 AI는 산업의 문제를 돌파하는 혁신의 핵심 톨이 될 것”이라



KT 구현모 대표가 AI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KT

고 말했다.

구 대표는 또 AI 인프라 혁신과 관련해 “산업 전반에 AI가 활용되면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실재로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돈을 다 주고 있다. 성능도 그래픽 처리용으로 만들어져 효율성도 좋지 않다”며 “AI 전용 칩이 나와야 하는데, AI 원팀을 통해 KAIST, 한양대 등 학교 연구기관, ETRI 등과 최신 알고리즘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AI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이 양질의 AI 인재 확보다. 내부 인력 육성이 중요해 KT는 자격 인증

자를 2100명 정도 갖추고 있다. 이들을 전문 엔지니어로 키워내야 한다”며 “KT는 국내에 AI로 첫 베이스를 만들어 대한민국 AI 인재 육성을 경험해왔다”고 소개했다. KT는 채용 연계 교육프로그램 ‘에이블(AIVLE) 스쿨’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5000명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구 대표는 “AI 기반으로 RPA(로봇 자동화기술)를 통해 지난해 한 해만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국내 최대의 KT 고객센터에 보이소트를 적용했으며, 보험·증권·홈쇼핑 등 콜센터에 AI를 적용했다. AI 수주액이 상당하다. KT 고객센터는 들어오는 콜의

25%를 보이소봇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지난해 1등 상을 받고 올해 2등 상을 받았다”며 “내년 좁은 원격의료 사업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또 최근 그가 연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디지털 전환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임을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디지코를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주기도 내가 취임하기 전보다 80% 이상 성과를 냈다. 운동장을 넓힌 디지코 전략이 옳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주주를 만날 때도 단순 통신회사가 아닌 전 세계 통신회사가 따라야 할 롤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은 “세계는 초거대 AI, 언어모델, 멀티모달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 세계 빅테크 AI 연구소들이 초거대 AI에 집중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초거대 AI가 멀티태스킹에서 최적화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KT의 초거대 AI ‘믿음’은 감성을 이해하고 인간과 공감하는 AI를 목표로 하고 있다. KT는 ‘믿음’의 특징을 활용한 AI 전문상담, AI감성케어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AI 전문상담은 AI가 단순 문의 응대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 영역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AI형상화 및 개인화 TTS(Text to Speech) 기술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KT는 지니TV의 음성대화 기능을 사용해 AI 오은영 박사와 상담할 수 있는 ‘오은영 AI 육아상담 서비스’를 시연했다.

초거대 AI를 통해 진화할 AI컨택센터(AICC) 서비스 혁신 계획도 밝혔다. KT는 기업고객 누구나 간편하게 AICC의 셀프 가입과 구축, 상담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클라우드 컨택센터 ‘KT A’Cen Cloud(에이센 클라우드)’의 12월 출시를 발표했다. 에이센 클라우드를 금융, 보험, 카드, 커머스 등 업종에 도입할 경우 상담 품질 10% 향상, 운영비용 15% 절감, 구축비용 30% 절감 등이 예상된다.

KT는 또 AI를 활용해 디지털혁신을 추진할 분야로 물류를 지목했다. 디지털 물류 전문회사 톨랩과 ▲AI 운송 ▲AI 풀필먼트 ▲AI 화물/중개 운송 3종의 K T AI 물류 플랫폼을 활용해 대한민국 물류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최윤희 “파트너사 긴밀 협력… 미래 동행”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삼성SDI ‘동반성장데이’

파트너사 CEO 등 210명 참석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삼성SDI가 파트너사와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동행 의지를 다지기 위해 ‘동반성장데이(day)’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SDI는 지난 15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삼성SDI 동반성장데이’를 열어 파트너사와 함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파트너사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윤희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과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파트너사 최고경영자(CEO) 등 관계자 21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삼성SDI의 ‘동반성장Day’는 파트너사들이 모여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됐다. 이후 삼성SDI는 파트너사의 품질개선, 인력



15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년 삼성SDI 동반성장Day’에서 (왼쪽부터) 최윤희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상을 천보 대표이사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SDI

지원, 매출확대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동반성장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매년 10여 개 파트너사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SDI와 파트너사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 3자간 ‘양극

화 해소 자율협약’도 체결됐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대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동참하자는 취지다.

삼성SDI는 향후 3년간 총 1552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2019년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윤희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지열한 글로벌 경쟁속에 파트너사와 삼성SDI가 동반성장 하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설비 등 전 부문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제조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SDI는 파트너사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한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동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은 기자 zelkova@

한진그룹, 윤리경영 실천 결의서 채택

경영진 간담회 개최… 성과 공유

한진그룹이 계열사 윤리경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한진칼 빌딩에서 한진칼, 대한항공, (주)한진 등 한진그룹 7개 그룹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및 그룹사 경영진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룹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위원과 한진칼, 대한항공, (주)한진, 진에어, 한국공항, 한진정보통신, 토파스여행정보 등 7개 그룹사 대표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진그룹 경영진은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질적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을 기반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목표준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진그룹이 세계 최고의 종합 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윤리의식이 기업 경영의 초석이 돼야 한다”면서 “모든 그룹사 경영진이 앞장서서 준법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 고객, 이해 관계자를 만족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자율주행 통신기술로 어린이 안전 지킨다

서울시와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LG전자가 자율주행 통신 기술로 서울시 어린이 교통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LG전자는 서울시와 ‘어린이 교통안전 특화시스템 구축’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LG전자의 모바일 솔루션 ‘Soft V2X’를 활용한다. V2X는 차량과 모바일, 교통상황 등 모든 개체간 통신으로 접근을 알리는 기술로, 보행자와 차량 등 충돌 위험을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도록 만들어진다.

LG전자는 별도 V2X 전용단말기 없이 누구나 모바일에서 앱을 다운받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 위치와 방향, 속도 등 데이터를 전송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 충돌 위험이 예측되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스마트 CCTV와 연동해 앱을 설치하지 않은 보행자 충돌 위험도 감지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LGD, H 그랑프리 어워드 ‘기술 특별상’ 수상

하이비 주관… OLED 기술력 입증

LG디스플레이 OLED 패널 기술이 일본에서도 인정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일본 ‘하이비’ 주관 ‘2022 그랑프리 어워드’에서 기술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이비는 매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고 제품을 선정해왔으며, TV 분야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제품은 ‘EX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OLED TV 패널이다. TV 한계를 넘어 화질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올해 하이비 수상



LG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 /LG디스플레이

리스트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다. EX 테크놀로지는 중소수 기술과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휘도를 30% 높이고 색정교도를 높인 기술이다. 베젤도 30% 줄여 디자인도 개선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